

AUTHOR 김재성 (Jea Sung Kim)

TITLE 최근 칼빈 연구의 동향과 과제
(Recent Trends of Calvin Studies)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18 no.1 (May, 2000): 153-202

최근 칼빈 연구의 동향과 과제

김 재 성

<조직신학·조교수>

1. 문제 제기
2. 칼빈에 대한 전설: 신정통치의 독재자?
3. 20세기 칼빈 연구의 시도들
4. 칼빈에 대한 고정관념들
5. 경건이나 영성이나?
 - 5.1. 경건의 원천: 하나님의 말씀
 - 5.2. 경건의 범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개된 삶
 - 5.3. 경건의 목표: 교회와 자아의 갱신
 - 5.4. 경건의 연습: Sumper Reformata!
 - 5.5. 위대한 경건의 힘

맺는말

1. 문제 제기

칼빈의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핵심을 지적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살펴보면 확연히 대조되는 엇갈린 주장들이 대립을 이루고 있고, 그

중에서도 칼빈에 대한 비난도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을 다루어보고, 그리고 그의 사람됨과 신앙 인격, 그리고 신학의 핵심 저변에는 경건이 가장 중점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기독교강요』 외에는 어떤 저술을 남겼는지 잘 모르며, 그의 여타의 많은 글들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강요』조차도 워낙 방대한 책이요, 신학의 주제에 대한 토론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의깊이 읽지 않으면 핵심을 파악치 못하게 되고 만다. 그의 진면목을 온전히 파악하고자 그의 글이나 사건들을 좀더 총체적으로 섭렵해보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때로는 말에 의해서 ‘칼빈은 냉혹한 사람이요, 그의 신학은 예정론의 틀 속에 갇혀있다’고 되뇌이게 된다.

칼빈이란 사람의 신앙과 신학을 이해 하려면 로마 교회에서 성장하여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되는 그의 회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청년기에 가톨릭을 버리고 개혁신학을 받아들여게 되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바른 이해의 지평에 들어가게 된다.¹⁾ 개혁신학의 초석을 든든히 세운 칼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좀 더 그의 신학과 그 형성 과정을 알고 싶어하는 탐구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다음의 그의 고백에 대해 항상 깊은 배려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된 경건의 지식에 대해 약간의 맛을 본 후에, 나는 즉시 그 안으로 진보하려는 매우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비록 내가 다른 학문들로부터 모두 떠난 것은 아니었지

1)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 39~83쪽.

만, 그러나 그것들을 추구하는 열성은 아주 적었다. 일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참된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게 와서, 나도 아직 신참자요 초보자인데, 나에게 배우려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상당히 놀랐다. 내 입장에서서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기 위해 나는 아무도 모르는 숨을 곳을 찾고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다소 수줍어하고, 겁이 많아서 항상 조용한 것과 평온함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의 이 염원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와는 정반대로, 내게 있어서 모든 휴식과 휴양의 장소는 공적인 학교들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사는 것이 항상 나의 목표였는데, 나의 그런 자연적인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변화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 그런 곳에서 조용히 휴식하도록 허락지 않으셨다.²⁾

그런데 칼빈의 회심에는 경건이라는 그의 고백이 들어있고, 경건의 지식에 대해서 새로움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칼빈 연구에서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경건의 교훈이다. 그 자신이 그토록 깊이 감동을 받아 살고자 했던 모든 총체적인 신앙상태가 바로 경건이었다.

칼빈의 생애를 연구해 온 칼빈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먼저 검토하여 보면 상당히 엇갈리는 주장들 속에 방향을 잃게 된다. 다시 말하면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각자의 선입견과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고 대립하는 주장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과거 역사 속에 묻힌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그가 간직했던 진리와 가르친 거룩한 교훈들, 다시 말하면 그의 신학을 재발견하려는 작업은 극히, 조심스럽게 주의해야만 한다.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가

2) J.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 tr. James Anderson, pp.xl~xli.

르치는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다룰 때에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인간으로부터 배움을 얻으려 할 때에도 연구자에게 부여된 중대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편협한 사조에 좌우되지 않으려 노력해야만 한다.

2. 칼빈에 대한 전설: 신정통주의 독재자?

칼빈의 생애를 왜곡하는 수많은 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떠돌고 있고, 마치 전설처럼 회극화 되어서 흘러 내려오고 있다.³⁾ 칼빈이라는 희한한 인물이 제네바라는 도시를 '신정정치 독재자'로서 호령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전설 가운데 하나이다. 이 무시무시한 표현은 칼빈 당대의 많은 대적자들,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해야했던 자들과 처벌을 받은 자들이 남겨놓은 독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에 대해 빈정거리며, 그의 품위를 손상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줄곧 채택되어왔다. 마치 검은 유령의 사나이처럼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집요하고도 격렬한 욕설로 상대방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칼빈이 머물던 제네바 시가 처해 있던 사회 상황 대한 연구서들이 속속 출간되어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므로써 다소 그에 대한 일방적인 의혹이 풀리고 있다.⁴⁾ 더구나 정치적인 분야

3) Basil Hall, "The Calvin Legend," in *John Calvin: A Collection of Essays*, ed. G. E. Duffield (Grand Rapids: Eerdmans, 1966): 1~18. 칼빈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로, 그의 제자인 베자, 그의 개종자들인 윌리엄 퍼킨스와 청교도들, 성화를 달성하려했다는 18세기 복음주의자들, 제세례파들, 칼 바르트 등을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칼빈의 대적자들이 남긴 곡해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없는 '전설들'이라고 지적한다.

4) Robert M. Kingdon, "The Control of Morals in Calvin's Geneva," in

의 연구서들이 많이 출판됨으로써 칼빈의 인격적 면모 가운데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던 독재자라는 누명을 다소라도 벗을 수 있게 되었다.⁵⁾ 칼빈은 독재자가 아니라 건설자였고, 통치자가 아니라 설교자였으며, 중세에서 근세를 여는 수많은 신앙적인 토대를 제공한 탁월한 설교자요, 신학자였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결국 칼빈에 관해서 찬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거나 둘 중에 한쪽을 택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막연히 들어서 알게된 이야기들을 사실로 확산하는 단계로 논리적 비약을 하는 경우도 많다. 칼빈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그의 생애와 저술에 관한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는데, '전설'처럼 가공된 이야기와 흘러다니는 이야기 속에서 상정한 이미지가 사실인양 착각해 버린다.

따라서 막연히 단편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수 많은

The Social History of the Reformation, ed. Laurence P. Buck and Jonathan W. Zophy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2): 3~16. idem,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American Historical Review* 76 (1971): 50~69. E. William Monter, *Calvin's Geneva* (New York: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75). Jeannie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çaise* (Selingsgrove, PA: Susquhanan University Press, 1988). William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Allison Park, PA: Pickwick Publications, 1983).

5) W. Fred Graham, "Calvin and the Political Order: An Analysis of the Three Explanatory Studies," in *Calviniana: Ideas and Influence of Jean Calvin*, ed. Robert V. Schnucker (Kirksville, MS: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8). Harro Höpfl,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Ralph C. Hancock, *Calvin and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요인들이 뒤엉켜서 형성되어간 그의 일생을 먼저 명확한 사료에 의거하여 통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의 신학이 종교개혁의 체계적인 금자탑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영향을 준 주변의 도시와 사람들과 만나서 형성한 그의 수많은 경험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넓게는 16세기의 시대적 특성과 정황, 유럽에 분포된 각 민족들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프랑스의 정치와 종교간의 갈등, 스위스에서 피난민에 대한 대립과 박해받는 망명자들의 생활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칼빈이 가진 개인적인 집안 사건들과 신앙의 성격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프리트 뷔쎈 교수는 『칼빈의 자기 판단』이라는 책에서 칼빈의 강력한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분석한 바 있다.⁶⁾ 그는 자신을 루터의 계승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종교개혁의 선봉장을 높이 평가하였기에 이제 자신이야말로 개혁운동의 승패에 결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재능과 운사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런 확신은 아주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었고, 각종 회의에서 주위를 놀라게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책임의식이 그로 하여금 확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가 다른 동료들 불신하였다거나 충성스러운 주위의 동역자들 속에서 격리되어 도도히 지배자로 군림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칼빈은 학자적이며, 아주 예민한 지도력을 가졌고, 주어진 임무를 대할 때에 회피하거나 뒤로 움츠러들기 보다는 사명감(sense of mission)을 갖고 대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전투에 몰아 넣으셨다”

6) Fritz Büsler, *Calvins Urteil über sich selbst* (Zurich: 1950).

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집요하게 그 전투에서 최선을 다했다. 전투는 잔인하고 혹독한 대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마다, 그의 확신은 하나님께 있었다. 모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들의 사악함이 하늘에 사무쳐서 나의 사역에 대해, 교회를 위한 어떤 직분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으리라는 희망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펼치사 나를 붙잡지 않으셨더라면 나의 영향력은 사라져 버렸을 것이오”라고 비레에게 토로하였다.⁷⁾ 1547년 칼빈은 빼랭을 중심으로 한 적대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 주시리라 확신하였다. 이 일에 대해서 17년 후에도, 제네바 교회의 목사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면서 ‘나는 삼 천번도 더 넘게 제네바의 목사직을 잃어버릴 정도의 방해에 부딪혔었다’고 회고하였다. 종종 칼빈은 절망에 빠져버릴 만큼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수많은 실패를 맞았고 절망상태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직 그를 강인하게 붙잡아 주신 분이 계셨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었다. 독재자라는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의 사람이었다.

칼빈을 생각할 때에 ‘신정통치’(theocracy) 대신에, ‘그리스도의 통치’(Christocracy) 혹은 ‘목사 정치’(clerocracy)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성경에 의한 통치’(Bibliocrac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세속의 정치 담당자들이 모두 다 교회의 목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공적인 책무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칼빈은 정치목사가 아니

7) 1547년 12월 14일자. *Calvin's Selected Works*, V. 5:148~9.

있고, 성직자들의 정치는 더 이상 없었다. 오히려 로마 바티칸과 프랑스 국왕의 왕실에서 신정통치가 가속화 되었었다.

우리가 '칼빈의 제네바'라는 말을 곧잘 하는데, 이런 간단한 생각 속에는 분명히 제네바의 명성과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종교 개혁자를 칭송하는 견해보다는 오히려 시민사회의 주권을 제한한 독재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이 도시의 신화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그는 알렉산더나 한니발이 아니었다. 만일 칼빈이 제네바를 바꾸어 놓았다면, 제네바 또한 칼빈을 바꾸어 놓았었다. 칼빈이 성경적인 원리를 동원해서 이 자치도시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칼빈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 도시를 지도해나갈 때에, 그의 생각의 핵심부분에는 제네바의 정치원리, 시행규칙, 제반 상황들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거룩한 도시를 이루고자 신앙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스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의 『폭력에 대항한 양심: 칼빈에 맞선 카스텔리오』는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가혹한 비난과 독설로 가득 찬 분노에 휩싸여 있는 책이다. 츠바이크는 이 책에서 쇠로 된 체찍을 휘두르면서 비정의 도시를 다스린 제네바의 독재자로 칼빈을 묘사하였다.(un homme sans coeur et sans entrailles) 칼빈은 성경의 무오설, 특히 아가서의 정경성을 부인하는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에게 제네바에서 설교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 그 후부터 카스텔리오는 칼빈에 대해서 저주를 쏟아놓았다. 칼빈은 광신적인 주지주의자로 묘사하였고, 카스텔리오는 코끼리에 맞서서 싸우는 양심적인 모기 한 마리라고 변호하였다.

약자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인간의 동정심에 의해서, 그리고 철두철미한 신분주의 신앙보다 느슨한 휴머니즘의 반동에 의해서, 칼빈

은 광기에 휩싸여 있던 모질고 혹독한 살인마요, 도무지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금욕주의자로 채색시켜 버렸다.

깜마르고 기다란 타원형 얼굴은 …… 흡혈귀처럼 뺨에 있는 핏기를 다 빨아먹은 듯, 두 뺨은 주름지고 병들고 창백하다. 이 두 뺨이 격렬한 분노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데에는 몇 초도 안 걸릴 것이다. 길게 훑날리는 예언자 수염이 이 바짝 야윈 노란 얼굴에 남자다운 힘의 모습을 주려 하지만 헛일이다. 이 수염도 생기나 풍만감은 없다 …… 그러나 아래로 내려가다가 문득 이런 그의 손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된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손처럼 끔찍한 모습이다. 바짝 야위고 살집도 색깔도 없는 손, 차갑고 뼈마디가 불거져 나온 손, 독수리 발톱처럼 한 번 거머쥔 것은 강하고 욕심스러운 뼈마디로 꽉 움켜쥔 것 같은 손 …… 그것은 분노한 사람의 손이며, 그 손만 보고도 칼빈이 일생동안 지냈던 지배하고 감독하는 위대하고 잔인한 힘을 짐작하게 된다.⁸⁾

이렇게 칼빈은 로마 가톨릭 측에서 출판된 연구서보다도 개신교 내에서 더욱 공정한 대접을 받기가 더 어려웠다. 이것은 차라리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묘사이다. 츠바이크는 히틀러 통치하에서 가장 극심하게 저항하던 나라 오스트리아 출신이었으므로, 외국인에게 독한 체형을 가했다는 칼빈의 생애에 대해 남달리 증오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짓밟고 자유와 평화를 빼앗아 가버린 독일의

8) Stefan Zweig, *Castellio gegen Calvin, oder ein Gewissen gegen die Geuult*(Vienna: 1936), 『폭력에 대항한 양심: 칼빈에 맞선 카스텔리오』, 안인희 옮김(서울: 자작나무, 1998), 61쪽. 1946년에 이 책은 프랑스어로 출판되었으며, Roland de Pury는 칼빈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이 책에 대해 지금까지 출판된 역사서 가운데서 그 어떤 책보다도 철저히 왜곡된 문서라고 혹평하였다(1947년 4월 12일자, *Réforme*를 볼 것).

독재자, 히틀러에게 발견하는 모든 부정적인 모습을 칼빈에 대입시킨 것이며, 근거없는 황당한 상상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는 실제로 우울증과 망명생활로 전전하는 동안 이 책과 비슷하게 루터에게 맞선 에라스무스를 높이는 책을 쓴 바 있고, 1942년 부인과 함께 자살하고 말았다.

마치 칼빈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비밀경찰, 무장 경호원, 번쩍거리는 계급장과 훈장을 달고 군중을 선동하는 인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칼빈은 정치적 권모술수를 부리지 않았으며, 무장 경호원도 없었고, 아무런 정치적인 지위나 특별한 직책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매우 평범한 사람들처럼 검소하게 살았으며, 말쑥을 위임받은 목사라는 것 외에 아무런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정관념은 아무런 역사적 고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대 역사가의 묘사에 의해서 사실처럼 돼 버렸다. 츠바이크가 죽은 후, 장 쇼레(Jean Schorer)는 츠바이크의 책에서 이곳 저곳을 발췌하여, 잘못된 인용을 그대로 사실화시켜 다시 한번 '독재자 칼빈'이라는 고정관념을 유포하였다.⁹⁾

그러나 그 어디에도 칼빈을 그토록 냉혹한 독재자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빙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네바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죽고, 추방당하고, 감옥에 가고, 체벌을 받았으나, 이런 사실들은 16세기 상황을 이해할 때에 공정한 평가가 가능해 진다. 로마

9) Jean Schorer, *Jean Calvin et sa dictature d'après des historiens anciens et modernes*(Geneva: 1948). 그러나 츠바이크와 쉬코레의 혹평에 대해 전혀 지성적인 순수성이 결여된 책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Henri Delarue and Paul F. Geisendorf, *Calvin, Stefan Zwig et M. Jean Schorer* (Geneva: 1949)를 볼 것.

가톨릭에서 행한 모든 종교재판과 잔인한 박해와 체형들은 거의 유럽 전역을 휩싸고 있었기에 당시의 페러다임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체벌의 원흉으로 칼빈을 지목하는 것은 당시 제네바의 권력구조나 결정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무지에 기초한 것으로, 전혀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가 목격하듯이 역사에는 잔인한 일면도 숨어있는 것이다.

여기서 칼빈의 동시대 목격자의 글을 제시하여 앞의 인용문과 대조적으로 읽어보기를 권한다. 제네바에서 칼빈과 함께 목회했던 플라동이 목격한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자.

그의 일상 생활에 대해서 말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가 지나치지도 않고, 비열하지도 않고, 칭찬을 받을만큼 검소하고, 절제했다는 증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위장 때문에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 음식들을 피해야 하지만, 이런 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까다롭게 여겨지거나 그것 때문에 곤란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다. 그가 가지고 있던 단 한가지 단점이란, 절제로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몇 년 동안 하루에 한 끼만을 먹는 정도요, 식사 중간에는 아무런 간식도 하지 않았는데 이를 도리어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 그런 이유로 위장이 약하고 편두통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규칙적인 절식에 의해서만 고쳐칠 수 있다고 했다. 때때로, 그가 다음날까지도 아무것도 먹지않는 것을 난 자주 볼 수 있었다.¹⁰⁾

지나친 검소함과 자신에 대한 금식, 결국 그의 가장 큰 단점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조금도 시간과 물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절제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자아에 대한 고통

10) Parker, *John Calvin*, p. 123.

을 느끼지 않은 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칼빈은 금식으로 이런 고통을 체험하면서 자신을 위한 훈련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것이 그의 드러나지 않은 경건이다.

그는 설교와 강의라는 무척 바쁜 일상의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많은 대외문제를 다루기도 해서 그 저술의 무게와 범위는 엄청나며, 그로 인해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사후에 여러 종류의 저작전집이 출판되다가 1863년부터 1900년까지 각 권의 분량이 백과사전처럼 큰 책으로 59권에 집결되었다.¹¹⁾ 그 후에 추가된 설교집이 7권으로 편집되어 출판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출판되지 않고 원고로 남아있는 것도 많다.¹²⁾ 안타깝게도 1806년, 제네바의 고문서 도서관이 비좁아서 서고에 남아있던 원고들을 팔아버려서 더 이상 추정이 불가능한 부분도 많다.

풀라동은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낳은 칼빈의 저술이나, 작업의 습관에 대해 묘사해 놓았다. 칼빈은 밤새도록 연구하고 생각하고 정리하여, 새벽까지 깨어 확실하게 정돈해 있다가 그것을 쏟아놓았다. 설교나 주석을 위한 준비로 밤을 지새우는 '제네바의 부영이'였던 것이다.

건강을 매우 나쁘게한 것은 그의 매우 적은 잠이었다; 이것으로부터 쇠약해졌음에도 그는 결코 자신의 임무와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실수한 적이 없었다. 자신이

11) *Corpus Reformatorum* (종교개혁 저작전집, 29권~87권)은 그 제목이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이며, 흔히 CO로 줄여서 표기되고 있다. W. de G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tr. Lyle D. Bierma (Grand Rapids: Baker, 1993), p. 220.

12) *Supplementa Calviniana: Sermons inédits*, 1936년부터 1981년까지 프랑스어로 된 설교집이 추가로 출판되었으나, 아직 창세기 설교 89편, 이사야 124편, 에스겔 69편, 사도행전 44편, 고린도전서 58편이 원고의 상태로 남아있다.

설교차례가 아닐 때에는 책들을 침대로 가지고 가서, 다섯 시나 여섯 시에 자기를 위해 받아써줄 사람으로 하여금 책을 쓰게 했다. 만일 그 주간이 설교할 주일이면, 그는 설교단에 올라갈 시간에 맞춰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난 후, 곧바로 집에 돌아와서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다른 책들에 대한 자신의 노력을 집중하였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그의 독창성으로 가득 차 넘치고 있을 때에, 자신의 대부분의 책들을 구술한 방법이다.¹³⁾

정확한 기억력을 가지고, 항상 부르다가 멈췄던 곳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생각하여, 지속적으로 구술하여 나갔다. 여러 권의 책을 쓰고, 설교를 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개혁주의 성경해석법을 찾아 낼 수 있고, 성경을 어떻게 풀이하고, 고대의 학자들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시편에 담긴 다윗의 생애에서 개인적으로 큰 위로를 얻었고, 사도 바울의 글에서 헌신의 다짐을 하고, 경건을 배웠던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모든 주석을 쓰려는 의도로 1540년 로마서 주석을 필두로 노력하여, 1551년까지 모든 주석의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처럼 남보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충분히 먹지 않고, 잠을 줄이고, 혼음을 아껴서 살아간 사람을 향해서 걸으로 드러난 표정만으로 매도하는 것은 한 인격에 대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칼빈의 불관용은 너무나 과장되었으며, 그의 배운 관용은 너무나 간과되고 있다. 특히 한 사람의 죽음이 칼빈의 결정적인 독재성을 드러내는 증거로 종종 인용되어왔다. 1553년 10월 27일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서 세베투스(Michael Ser-

13) CO XXI: 109~110; Parker, *John Calvin*, p. 124.

vetus)가 화형에 처해졌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공할 만한 불경죄를 범했고, 특히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없이 어머니에게서만 출생하였으므로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었으리라는 헛소리도 첨가했다. 한 때 의사로서 활약했던 그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만으로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설명하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비엔나에서 화형을 선고받고 도망하여 온 세베투스도 제네바에서 죽은 일을 놓고서 칼빈의 잘못으로 돌리는 역사적 평가는 과연 올바른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¹⁴⁾

14) 세베투스의 사건을 칼빈이 어떻게 취급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20세기에 가장 정확한 칼빈 학자로 손꼽히는 Ronald S. Wallace는 당시 칼빈이나 베자의 결정은 거의 모든 개혁교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실임을 지적한다.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Grand Rapids: Baker, 1988), p. 77. 그러나 세월이 점점 지나서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정서가 짙어지면서 이 사건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903년 10월 27일, 개혁교회는 세베투스 사건 연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베투스에게 속죄하는 화해의 비문을 화형의 형틀이 있던 곳에 세웠다. 위대한 칼빈 학자였던 두베르그가 이런 일을 주도했고, 다음의 기념비문을 썼다. "Respectful and grateful sons of Calvin, our great Reformer, but condemning an error which belonged to his century and firm believers in freedom of conscience according to the true principles of the Reformation and the Gospel, we have raised this expiatory monument." 1901년에서 1959년 사이에 나온 연구들은 W. Niesel이 작성한 *Calvin-Bibliographie*(München: 1961)에 실려있다. Bonnet이나 Doumergue 같은 학자들은 이 사건은 칼빈 개인의 실수라기 보다는 그러한 종교분쟁의 분위기가 낳은 그 시대의 실수라고 평가하였다. 이 당시 결정과정을 매우 소상하게 들었던 멜랑톤이 이를 위대한 결정이라고 인정하였다(Letter of Melancthon to Calvin, October 14, 1554). 세베투스 사건을 그 어느 책보다도 매우 상세히 다루면서, 스틱 켈버거는 당시의 사건을 오늘의 역사가 생각하듯이 할 수 있던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단호히 선언하고 있다. Emmanuel Stickelberger, *Calvin, A Life*, tr. David Georg Geizer(Richmond: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칼빈의 잔인성'을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역사의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순수한 종교개혁의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단 한가지 사실 때문에 스페인에서, 네델란드에서, 잉글랜드에서 메리 여왕의 박해시대에, 그리고 부도덕한 프랑스의 여러 왕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감행된 수많은 화형과 처형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칼빈은 세베투스의 경우도, 화형만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고, 그가 처형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통을 느꼈으며, 이런 잔인한 살인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몸부림치기 록이 있다. 16세기의 종교대립의 시대를 살았던 칼빈에게 종교적인 관용이 부족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오직 그는 신앙의 파괴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을 참지 못했을 뿐이며, 교회의 판정은 언제나 신중하고 관용적이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가 점점 잔인해지는데 유순한 정신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이는 죄인을 존중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크게 조심을 해야만 되는 필요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도 여러분들의 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형제로 존중하라고 사도는 말씀하신다.¹⁵⁾

따라서 칼빈을 마치 자유를 말살하고, 건실한 권고를 아예 무시하는 독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자유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대혁명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을 길료턴 위에서 무참히 살해했다는 사실을 놓고 무엇이라고 변명하려는가?

칼빈을 '제네바의 독재자'로 몰아세운 19세기와 20세기의 저술가

John Knox Press, 1954), p. 132.

15) Inst. IV.xii.1.

들은 상당수가 전설에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다. 정확한 역사적 근거도 없이, 그저 흘러오는 전설의 이야기를 따라서, 완전히 조작된 이미지를 그대로 반복했다. 발자크의 평전(Honoré de Balzac, *La Comédie humaine*)에 보면, 1541년 칼빈이 제네바에 돌아오자마자, '추방을 시작했고, 자신의 종교적인 테러를 조직하였다'고 늘어놓고 있다. 그의 시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었으나, 아마도 로베스피에로와 칼빈을 혼동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방을 제압할 목적으로 칼빈에 의해서 저질러진 테러는 그 어떤 형태라도 결코 찾아 볼 수 없다. 칼빈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경찰력이나, 공공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공포를 조성하거나 압박을 가한 적이 전혀 없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이후로 관여한 처형은 오직 한 사건, 세르베투스의 일 뿐이었다. 칼빈은 혼자서 명령을 내리거나, 호통을 치거나, 조사하거나, 심문하거나, 어떤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통치자의 자리에 앉은 적이 결코 없었다.

칼빈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에서, 최근 알더스 헉슬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포시킨 말이 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위대한 신정통치자로 군림하던 시절에, 한 어린 아이가 그 부모를 때렸다고 해서 반인격적인 죄악이라고 하여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전혀 역사적 근거가 없는 말이다. 문헌적인 자료 제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조작에 의존한 것이다.¹⁶⁾ 당시 제네바에서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폭행하는 사건이나

16) Aldous Huxley, *Proper Studies*(London: 1949), 287: "during the great Calvin's theocratic rule of Geneva a child was publicly decapitated for having ventured to strike its parents." A.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p. 106. 맥그라트 교수는 제네바 고문서 도서관을 아무리 조사해도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형을 내린다는 법조문 자체가 없었고, 그런 사건들을 다룬 문서상의 근거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후대의 어느 문서에 나오는 사건을 거꾸로 올라가서 칼빈 시대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최근 학자들의 연구 중에는 제네바 당회록을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칼빈이 시도했던 일을 조금씩 밝히고 있는 중인데, 칼빈이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던 영혼의 목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자신의 최근 논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위스콘신 대학교의 로버트 킹던 교수는 힘주어 주장한다.

칼빈은 목회자로서 지속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친척들과, 이웃들과, 기독교인들의 전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네바 당회록을 좀더 자세하게 검토해 보면 칼빈의 일생에 있어서 감추어진 면모를 알게 될 것으로 희망한다.¹⁷⁾

이미 스토포르 교수가 이런 엄청난 음모에 대항하여, 『칼빈의 인간성』을 써야만 했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사건 기록은 없었다고 논박하면서, 설령 그런 조항이 있다해도, 칼빈의 역할이란 가끔 자신의 전공과목인 법조문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제네바의 시민법은 칼빈이 만든게 아니라, 시당국에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었다.

17) Robert M. Kingdon, "A New View of Calvin in the Light of the Registers of the Geneva Consistory," in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is Vindex*, ed. W. H. Neuser and Brian G. Armstrong, vol. xxxvi(Kirksville, MS: Sixteenth Century Essays & Studies, 1997): 21~34.

서문에서 칼빈에 대한 역사적 오해가 심각하다는 사정을 문헌적으로 밝히고 있다.¹⁸⁾ 일부 악감을 가진 칼빈의 추적자들, 당대에 함께 살았던 제롬 볼섹을 비롯하여, 프랑스 가톨릭 오딘(J. M. Audin), 캠프슐트(F. W. Kampschulte) 에 의해서 엄청나게 폄하되고, 왜곡되었음을 알아야만 한다.¹⁹⁾

마치 호메이니가 회교원리로 이란을 다스렸듯이, 칼빈이 피홀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무서운 독재자로 제네바를 신정통치하였다고 막연하게 비난해버리는 경향마저 있다. 어떤 역사교수는 칼빈주의를 오해하여 무자비한 도덕적 엄격주의요, 교회가 앞장서서 징벌과 징책을 집행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칼빈이 종교개혁의 임무를 수행

18) Richard Stauffer, *The Humanness of John Calvin*, tr. George Shriver (Nashville: Abingdon, 1964; 1971), pp. 20~31.

19) 스토페르 교수가 칼빈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목회자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에 맥 네일 교수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을 받았던 이유는 지금까지 떠돌아 다니는 근거없는 악평 때문이었다. 한때 개신교 진영에 있다가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간 제롬 볼섹(Jerome Hermes Bolsec)은 예정론을 거부하여 칼빈과 격렬한 논쟁을 하였으니, 그의 입장을 반영하여 나온 저술의 경향은 칼빈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채워 질 뿐이었다. 1562년에 처음으로 나온 Francois Baudoin이 쓴 두 권의 저서, *Ad leges de famosis libellis et de calumniatoribus, Commentarius*와 *Responsio altera ad Joan. Calvinium*에서 사악하고, 잔인하고, 승리에만 몰입하는 모습으로 그려놓았다. F. W. Kampschulte, *Johannes Calvin: seine Kirche und sein Staat in Genf*(Leipzig: vol. I, 1869; vol. II, 1899). 독일 본 대학의 교수였던 저자는 로마 가톨릭으로서 칼빈의 진면목을 그려내는데 실패하였다. 제 일차 세계 대전의 끝무렵까지 프랑스 가톨릭에서 교과서처럼 권위를 인정한 저서는 J. M. Audin, *Histoire de la vie, des ouvrages et des doctrines de Calvin*, 2 vols.(Paris: 1841)이었으나, 칼빈을 사랑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으니, 너무나 이기주의자였고, 끝없는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관용이 없는 사람이어서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여 피해버렸다고 쓰고 있다.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면에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후세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훈육과 징계를 실시한 바 있다. 로마 가톨릭의 박해의 칼을 피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기도 했던 칼빈과 당시의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이 맡은 일의 성격을 이해해야만 한다. 동시에 신화처럼 확인할 수 없는 말들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칼빈을 따르는 개신교회나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같이 주의해야할 것은 오늘의 척도를 가지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근거없이 전해오는 소문에 의존해서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칼빈도 시대의 아들이요, 교회와 역사의 산물이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선지자나 예언가가 아니었고, 더구나 몇 세기에 한 번 태어날 천재나 신동이 아니었다. 당대 휴머니즘의 영향하에서 고전을 공부하고, 성경과 초대 교부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사명감을 발견한 뒤, 그 세대의 문제들과 씨름하며, 제네바 시민을 향해 설교자로서 호소하고 교회의 당회와 시의회, 교육기관과 자선사업을 꾸려나간 경건한 실천가였다. 많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일생토록 고생하면서도 많은 저술과 편지를 남긴 문필가였고, 아내의 죽음을 놓고 가슴아파한 다정한 심성의 소유자였다.

3. 20세기 칼빈 연구의 시도들

칼빈 연구는 지난 450여 년 간 상당히 축적되어 왔고,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수집되어 있고, 또한 각국 언어로 소개되어 있다.²⁰⁾ 그러나 문제는 저자의 관점과 시각이 문제다. 같은 자료를 놓고서도

20) W. de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tr. Lyle Bierma(Grand Rapids: Baker, 1993), pp. 220~21.

전혀 다른 결론을 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세기 초엽에 칼빈 연구에 새로운 조류를 형성시킨 신학자들이 등장하였는데, 그중 중요한 두 조류가 형성되었다. 하나는 화란에서 일어난 ‘네오 칼빈주의’(neo-Calvinism)이고,²¹⁾ 또 다른 하나는 칼 바르트이다.²²⁾ 카이퍼 박사는 범신론과 진화론이 위세를 떨치던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속에서 가장 순수한 기독교의 원형으로 칼빈주의를 주창했고, 그의 강연과 저술들은 종교개혁의 신학을 다시 돋보이게 만들었다.²³⁾

세계 역사학계와 신학자들이 지난 20세기에 칼빈에 대해 관심을 갖게되고 새로운 해석을 쏟아놓게 된 것은 이들의 영향이었다. 칼

21)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1898; Grand Rapids: Eerdmans, 1931).

22) K. Barth, *Die Theologie Calvins*(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22); *The Theology of John Calvin*, tr. Geoffrey W. Bromiley(Grand Rapids: Eerdmans, 1995). 이 책은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칼빈의 생애와 신학을 종합적으로 다룬 것도 아니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철저한 루터신학의 보루 피팅겐 대학에서 중세와 종교개혁의 흐름을 일별하고 난 후, 점차로 칼빈에게로 기울어졌는데, 신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유익을 주는 신학자는 칼빈이라고 생각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바르트는 자신이 읽고 생각하고 변호하려는 신학을 가장 훌륭하게 포괄한 신학자가 칼빈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젊은 날의 칼 바르트는 칼빈으로부터 자신의 신학방법을 배웠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자유주의 신학계에 칼빈연구 혁명을 가져온 기여를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idem, *Nein Antwort an Emil Brunner*(1934) in *Natural Theology*(London: 1946).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 Harold Knight(Grand Rapids: Baker, 1956), p. 17: “we owe to Karl Barth, has produced a revolution in Calvin studies as elsewhere.”

23) James D. Bratt,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Grand Rapids: Eerdmans, 1998), pp. 8~9.

바르트가 칼빈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엽, 화란에서 일어난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의 영향을 입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하고, 새로운 지평을 연 칼 바르트가 주도한 변증법적 신학의 자극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 앞선 세기에 비한다면, 20세기는 세계 도처에서 폭발적인 칼빈 연구 업적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상당수가 칼 바르트의 영향을 입은 제자들에게 의한 것이었다. 1990년대 10여 년간의 칼빈연구는 그의 신학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에 미치고 있으며, 정치, 사회, 경제적인 역할에 대해 새로운 연구성취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⁴⁾ 바르트는 자신의 ‘초월주의 신학방법’을 거부한 에밀 부룬너의 ‘자연신학’에 반대하는 격렬한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논리적 근거로 칼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었다. 칼빈은 16세기의 사람이지만, 바르트와 같은 20세기 학자가 아니라는 점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의 신학은 16세기의 성경적인 휴머니즘에서 출발하여, 당시의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교회 제도와 성례 등에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데 비해서, 바르트는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을 구성하고자 역설했고, 칼빈 신학도 그리스도 중

24) 칼빈 연구의 세계적인 추세를 가늠해 본 대표적인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John T. McNeill, “Fifty Years of Calvin Study,” in Williston Walker, *John Calvin: the Organizer of Reformed Protestantism, 1509~1564*(N.Y.: Schocken Books, 1969). Nauta, “Stand der Calvinforschung,” *Calvinus Ecclesia Doctor*, ed. Wilhelm H. Neuser(Kampen: Kok, 1978). Wilhelm H. Neuser, “Calvin Studies: A Review, The Work of the Calvin Congress and Their Future Tasks and Goals,” in *Calvin Studies* V. ed. John H. Leith(Davidson: Davidson College, 1990): 21~27. Richard C. Gamble, “Current Trends in Calvin Research, 1982~1990,” in *Cal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 ed. Wilhelm H. Neuser(Grand Rapids: Eerdmans, 1994): 91~112.

심적이라고 해석하였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있는 학자, 칼 바르트
의 칼빈 해석은 곧 바로 많은 학자들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
다. 방대한 칼빈의 저술 중에서, 정확한 인용의 기준도 설정하지 않
은 채, 여기저기 필요한 몇 구절만을 제한적으로 인용하면 얼마든지
20세기의 칼 바르트를 따르는 16세기의 한 바르트주의자로 만들 수
가 있다.²⁵⁾ 칼빈은 바르트 같은 신학자가 결코 아니었다.

칼빈이 바르트와 근본적으로 다른 신학의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잇어서는 안 된다. 칼빈의 신학 방법은 '교훈적'인 충고를 주고자 성
경의 주제들을 모두 다 균형있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삼위일체의
주제를 큰 골격으로 정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지식을 총괄적으로 제
시하였다. 그러나 어떤 주제가 다른 주제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예정
론이 성령론 보다 더 우위에 있다거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그리스
도에 대한 교훈보다 덜 중요해서 맨 마지막에 다룬 것은 아니다. 그
는 성경의 진리는 어느 하나라도 서로 뺄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역설하였다.

칼빈을 마치 칼 바르트 같은 조직 신학자로 규정하고, 그것을 중심
으로 보려는 시각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정관념으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 1975년 영국의 덜햄 대학교의 파커 박사가 저술한 칼빈 전기는
오늘날 가장 널리 애독되어 오고 있는 표준적인 연구서라고 볼 수
있다.²⁶⁾ 이 책은 신학자로서의 칼빈, 설교자로서의 칼빈의 모습을

25) Basil Hall, "Calvin Against Calvinists," in *John Calvin: A Collection of Essays*, pp. 22~23: "However, much of the interpretation of Calvin, based on Barthian theology, shows the putting together of a mosaic of quotations selected mainly from the commentaries and sermons of Calvin. By selected quotations Calvin can be made almost as good a Barthian as Barth."

26) T. H. L. Parker, *John Calvin*(Batavia, Ill.: Lion Publishing Cor., 1975).

충실히 조명하여 제시했다는 점이 장점이다. 파커 교수는 칼빈의 설
교에 대해 두 권의 탁월한 저술을 내었고, 출중한 라틴어 능력을 동
원해서 제 1차 자료에 철저하므로써 개괄적인 연구를 돋보이게 했
다.²⁷⁾ 그는 칼빈의 자료에 박식한 학자로서 『기독교강요』를 요약한
책과 칼빈에 관한 많은 논문들, 그리고 신구약 성경주석에 관해 연구
서를 펴냈고, 일평생을 바쳐 지대한 학문적 공헌을 남겼고, 대부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파커의 전기가 지닌 약점들이 지난 25년간의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파커는 자기 보다 앞선 세대에 널리 애독된 윌리스톤
워커와 헨트 등의 연구를 능가하고자 이미 인용된 글이나, 중요시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생략하였다. 위 두 사람의 연구는 칼빈과 당대
의 논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²⁸⁾ 따라서 지금 우리가
워커나 헨트의 칼빈을 읽을 때에 느끼는 긴박감과 즐거움이 다 사라
져버렸다. 칼빈의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매우 딱
딱한 전기가 되고 말았다.

다음으로, 심리학적인 연구 방법론이 칼빈에게 적용되어 새로운
분석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역사적인 인물 연구에 있어서 심리학적

27) T. H. L. Parker, *The Oracles of God: An Introduction to the Preaching of John Calvin*(London: Lutterworth Press, 1962). idem, *Calvin's Preaching*(Edinburgh: 1992).

28) Williston Walker, *John Calvin: The Organiser of Reformed Protestantism, 1509~1564*(N.Y.: Schocken Books, 1906). 세계 교회사의 기념비적 인 교과서를 저술한 워커 교수는, 칼빈 전기를 상세히 저술하여 한 세기 전에 명성이 매우 높았던 프랑스의 Doumergue를 크게 존중하여 미묘한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해결하고 있다. R. N. Carew Hunt, *Calvin*(London: The Century Press, 1933). 이 책은 12장 중에서 4장에 칼빈과 반대자들과의 논쟁에 치중하고 있다.

인 방법이 도입된 것은 프로이드의 영향 때문이었다. 취리히의 목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오스카 로버트 피스터는 칼빈의 심리적인 부분을 공격하므로써 그의 신학마저 재평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칼빈의 인격 속에는 사랑이란 전혀 없고, 불순한 고뇌에서 빚어진 잔인성과 증오심으로 가득 찬 '학대자(a sadist)'라고 비난하였다.²⁹⁾ 또한 칼빈이나 현대 칼빈주의자들이 의학적인 연구나 정신과 의사들의 도움을 기피하고 배척하였으며, '교회가 영혼의 치유를 독점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피스터는 칼빈을 강박신경증(compulsive neurosis)의 가련한 희생자로 간주한다. 1545년 칼빈이 페니에서 마녀사냥에 간여했다는 것이 유일한 증거이다. 그러나 그 많은 칼빈의 저술들 가운데서 사랑이 없어 보이는 구절만을 인용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형편없이 도전적이며, 전투적이었다고 한다면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 만들어지고 마는 법이다. 칼빈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처음에는 겁많은 학생이었지만 격렬한 비난을 퍼붓는 투사로 변모했다는 심리학적 분석은 인정하기 어려운 방법론이다. 심리학적 인물 분석은 타당성이 있지만, 품위를 떨어뜨리는 문장과 신랄한 형용사를 동원해서 '독설가 칼빈', 사랑스럽지 않은 칼빈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이런 분석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³⁰⁾ 이 책에 대해, 두 교수의 반론이 제기되었다.³¹⁾

29) Oskar Robert Pfister, *Calvins Einreifen in die Hexer und Hexenprozesse von Peney 1545 nach seiner Bedeutung für Geschichte und Gegenwart: Ein kritischer Beitrag zur Charakteristik Calvins und zur gegenwärtigen Calvin-Renaissance*(Zürich: 1947).

30)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p. 229~31.

31) Fritz Büsser, *Theologische Zeitschrift*(Basel: 1948), pp. 130~31.

최근에 윌리엄 바우스마 교수가 쓴 칼빈 전기, 『요한 칼빈: 한 16세기의 초상화』가 출간되었고,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³²⁾ 그동안 써 놓은 일련의 논문을 모아 놓은 이 책은 매우 불안정한 심리추적을 하는 방법론을 적용한 전기로써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어쩌면 칼빈 자신보다도 해석자나, 역사가, 혹은 전기 작가가 더 칼빈을 깊이 잘 이해하는 듯이, 심리파악을 시도한 작품이기 때문이다.³³⁾ 바우스마 교수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전문가로서 칼빈의 이미지를 매우 색다른 모습으로 제시하였던 바, 휴머니즘의 세계에 깊은 영향을 입어서 일생동안 그 흔적이 있으며, 동시에 두려움, 불안, 긴장된 심리가 항상 근본적으로 칼빈의 마음에 들어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심리분석적인 역사적 인물 묘사는 그 방법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³⁴⁾

Ernst Pfisterer, *Calvins Wirken in Genf*(Neukirchen Kreis Moers: 1957), pp. 143~50.

32)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33) I. John Hesselink, "Reactions to Bouwsma's Portrait of 'John Calvin,'" in *Cal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 ed. Wilhelm H. Neuser (Grand Rapids: Eerdmans, 1994): 209~213.

34) 칼빈에 대해 연구의 각도를 심리 상태 혹은 심리 묘사에 두는 시도는 이미 몇 사람의 학자들이 시행한 바 있었다. Suzanne Selinger, *Calvin against Himself: An Inquiry in Intellectual History*(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1988). David E. Demson, "The Image of Calvin in Recent Research," in *In Honor of John Calvin, 1509~64* ed. E. J. Furcha, Faculty of Religious Studies, ARC Supplement no. 3(Montreal: McGill University, 1987). 그러나 바우스마 교수의 연구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과연 칼빈이 불안한 심정과 불안한 믿음을 일생동안 근본적으로 가지고 살았는가? 과연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Brian G. Armstrong은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바우스마 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칼빈은 동료 목사들이 순교를 당하는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따라서 그의 글에는 많은 두려움과 초조한 정서가 배어 나온다.³⁵⁾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칼빈의 생애에서 과연 그의 경건이나, 기도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칼빈의 사상이나 삶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다윗의 시편

"If Bousma has discovered two Calvins, the reader also finds many Bouwsmas: The psychohistorian who believes he can get inside Calvin's mind; the iconoclast who gleefully destroys all theological images erected of Calvin." in *Church History* 58.1(March, 1989). Heiko A. Obermann 역시 이런 불안심리는 아무도 그 깊이와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객관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In assessing Bouwsma's complex argument, one must first of all grant that no Calvin scholar before him has uncovered so convincingly the personal fear and trembling in which Calvin wrote and lived. On the other hand, no effort is made to delineate the general anxiety of the times, both of the later Middle Ages and of the sixteenth century, so that we cannot know to what extent Calvin speaks from his own experience or to the condition of his times." in *Times Literary Supplement*, Religion(August 19~25, 1988).

35) 칼빈은 리용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순교 직전의 두 성도들에게 애절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었다. 따라서 그의 편지에도 이런 안타까움과 불안이 배어있을 수밖에 없었다. Letter to Macarius, May of 1558, *Calvini Opera* 17:91, "My dear and beloved brother, if, free from fear and anxiety, I should animate you and your brethren in office to endure the strife which awaits you, my language would rightly be considered cold, and even disagreeable. Distressed, however, as I am on account of your danger, and trembling as I do while exhorting you to perseverance and trust, this letter, which is a living image of my heart, and shows all its inward emotions, will speak to you no less clearly than I could myself were I present, and a partaker in your troubles. And certainly, if the worst should happen, it would be my wish to be united with you in death rather than to survive you."

에서처럼 철저히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를 제쳐둘 때가 너무나 많다. 그리하여 학자들이 만들어낸 전혀 서로 다른 인간상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칼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는 항상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본다. 그런 보편적인 불안심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궁극적 통치를 높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칼빈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근원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4. 칼빈에 대한 고정관념들

위대한 인간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의 명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의 진면목을 밝히는 것은 일부의 사람들에게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옹호를 받기도 한다. 최근의 칼빈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 칼빈의 세계와 그의 역할을 깊이 성찰하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출판된 연구업적에서 고정관념(stereotype)이 자리잡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수 천명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연구한 책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 선입관념이 드러난다.³⁶⁾

첫째로, 요한 칼빈이 탁월한 신학자요, 최근의 연구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성경해석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를 단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학자"라는 개념으로 상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칼빈을 종교개혁의 체계를 세운 딱딱한 조직신학자라고 생각하려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한다. 21세기 초엽, '신학자'라는 호칭은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육성하면서, 세상의 일에

36) Alister E.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Oxford: Basil Blackwell, 1990), pp. xi~xv.

는 초연하고(?) 그저 지적인 탐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을 지칭한다. 일반적인 세계와는 다소 격리되고 제한적으로 교회 내에서만 영향을 남김으로써 사회의 주인공으로, 지도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책과 씨름하고, 이론에 치우쳐 살아가는 처지이다. 칼빈을 16세기 신학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가 지금 우리 세대의 신학자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임을 놓치고 만다.

칼빈은 신학을 가슴으로 느끼고 감동해야 할 것이지, 머리로 해결해야 할 지식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지식을 쌓아올리는 실험실의 연구자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의 현장에서 활동한 영혼의 목자였다. 그러한 사명을 바르게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며 도움을 호소하고, 그리고 확신에 차서 실천에 옮겼다.

신학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요, 다른 여타의 학문처럼 단지 암기력이나 지능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혼을 송두리채 집중할 때 이해되는 것이요,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죄소와 거주하는 곳을 발견하는 것이다.³⁷⁾

칼빈의 사상, 신념, 능력, 그리고 영향력 등은 단지 그를 상아탑에 갇혀 원고몽치나 혹은 실험적인 연구에 몰두하는 이론가이자 신학자라는 뜻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는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분야를 망라해서 유럽 역사에 한 새로운 실체를 남긴 능동적인

37) Inst. III.vi.4: "It is a doctrine not of the tongue but of the life and is not apprehended merely by the intellect and memory, like other sciences, but is received only when it possesses the whole soul, and finds its seat and habitation in the innermost recesses of the heart." 칼빈의 신학하는 태도와 방법은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을 완전히 배격하는 것이었다.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 pp. 141~51.

사회의 지도자였다. 언어에 남다른 학식을 갖추고, 사회의 조직과 기관에 통찰력을 제시하며, 도시에 광범위한 필요와 요구에 해결책을 제시한 유럽역사의 주역으로서 그의 생애를 조망해야 하는 것이다. 칼빈을 단지 한사람의 '신학자'로만 보려는 선입관이 고정관념으로 형성돼 있어서, 그의 사상의 근원과 영향력이 광범위함을 놓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는 도서관에 묻혀 지낸 이론가나 사색가가 아니고, 오늘날 살아있는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들보다도 더 설득력 있으며 행동력 있는 지성의 힘을 가지고, 급변하는 전환기의 한 시대와 사회를 지도해나간 역동적이며 실천적인 지도자였다.

독일 종교사회학자인 트뢰츨취(Ernst Troeltsch)는 기독교가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두 시대가 있는데 하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신학을 토대로한 중세시대요, 또 다른 하나는 칼빈주의를 통한 근세초기의 시대라고 지적하였다. 바로 칼빈의 지적인 능력이 기독교가 사회와 조화를 이뤄서 적용하기 보다는 새롭게 형성하도록 하는데 근대사에 보기도문 영향을 끼친 것이다. 칼빈에게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점은 기독교가 추상적인 이론화에 몰두하여 신학논쟁이나 일삼고, 자기들의 세계에서 조금도 벗어날 줄 모르는 폐쇄적인 아집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실체 속에서 폭넓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설득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주의가 분명히 성경이라는 종교적인 신조에 근거하고 있지만, 순전히 종교운동만에 국한되어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본래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 서구 유럽의 문화와 일상생활 속에 젖어있는 원리이며,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독교가 서구 유럽에 미친 영향은 오늘날에도 무의식 속에서 광범위하게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해준 원동력이 되고있다. 특히, 요한 칼빈은 단지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만 살다간 사람이 아니었고, 사회의 문제들 속에서 교회와

함께 생생하게 활동하며, 살다가 갔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특히 서구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에 그가 남긴 영향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를 단지 한 사람의 신학자로만 치부해서는 아니 되며, 16세기 유럽 역사를 주도적으로 창출해낸 그의 폭넓은 활동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된다.

칼빈의 신학은 미술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검은 제복의 유령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라틴어 문체는 화려했고, 그의 프랑스어는 유려하였다. 고도로 훈련된 예술감각과 시적인 리듬이 살아있었다. 그 속에서 단순하게 성경의 진리가 제시되었다. 칼빈의 작품 속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집안의 풍경, 태양, 별, 꽃들과 세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부분들도 너무나 많다.

둘째로, 칼빈이 지적인 탐구와 과학의 발전을 적대시한다는 고정 관념이다. 반지성주의와 신앙제일주의는 간혹 서로 공통점이 많다. 칼빈은 오직 성경이나 신학만을 이상으로 삼고 다른 과학과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배척하지 않았다. 칼빈은 신앙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낙오되어야 한다거나, 세상의 모든 공부나 활동을 거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정적, 비판적 학자가 아니었다.

과거 수 백년 동안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적인 태양계의 이론에 대한 칼빈의 태도가 의문시 되어왔었다. 앤드루 덕슨 화이트는 신학과 과학이 싸워온 전쟁사(*History of the Warfare of Science with Theology*, 1896)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주장하는 모든 무리들을 저주한다고 했다. 그는 시편 구십삼 편의 첫 절을 항상 근거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 못을 박았다. 누가 감히 성령의 권위보다 코페르니쿠스의 권위를 높이 두려고 시도할 것인가?³⁸⁾

이 주장은 '종교와 과학'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반복되어졌다. 버틀랜드 러셀(Bertrand Russell)마저도 그의 『서양철학사』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의 논문이나 주석이나 그의 글 어느 곳에서도 위와 같은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창세기 주석에도 없음은 물론이다. 맥그라트 교수에 의하면, 19세기에 켄터베리 대학의 교무처장이던 파라(Frederik William Farrar, 1831~1903)가 전혀 신빙성이 없이 쓴 글에 보면 위와 같은 오해의 근거가 근본자료로 목격된다고 한다. 현대의 신학자나 기독교계에 이처럼 허구적인 글이 압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식인들의 글이나 말이 사실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데서 오는 무지와 수처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칼빈 자신의 글을 찾아보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대로 믿어버리는 선입견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오류가 유포되어 있는 것이다.

칼빈은 오늘날 소위 신학대학원 과정과 같은 정규 신학수업을 받은 바 없으며, 목사 안수마저도 언제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³⁹⁾ 그는 일반 철학과 교양과목을 이수한 뒤, 법학을 전공함으로써 학업을 마쳤다. 그가 이룩한 찬란한 개혁신학과 성경주석은 일평생에 걸친 그의 연구의 소산이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스승들 밑에서 가장 탁월한

38) Ibid., p. xiv.

39) Williston Walker, *John Calvin, The Organiser of Reformed Protestantism 1509~1564*(New York: Schocken Books, 1906, rep. ed. 1969), p. 123: "Calvin had never been ordained in the Roman Church; he was never be set apart for the ministry by the imposition of Protestant hands. He regarded his postoral labours as a task to which he was called of God, - a call witnessed by his own clear consciousness of the divine guidance in appointing him his course in life."

교육을 받았었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인재들을 양성하면서도 일반 학문을 무시하지 않았다. 오늘날 칼빈주의가 자연과학의 '새 지식'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며, 칼빈의 글과 교리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한 인물 칼빈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버리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를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더구나, 칼빈이 남긴 방대한 자료들을 섭렵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의 저술에서는 대단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에 당당히 역설들(paradoxes)을 접하게 된다. 칼빈 연구에 시간을 바치지 않으면 뜬소문을 따라다니는 격이 되고 만다.

칼빈 연구는 그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찬양하거나 홍보하려는 편견으로 집착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후에야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만 한다. 칼빈이 남긴 유산의 본질과 내용을 바르게 소개하여 이 위대한 거인의 생생한 모습을 통해서 서구 유럽에 듬뿍 담겨있는 그의 영향과 그의 사상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밝혀 봄으로써 우리 한국의 교회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지침을 찾으려 해야만 할 것이다.

지나간 시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칭송이나, 자신의 입장에 대한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앞선 시대는 훌륭한 성취와 업적도 이룩하였지만, 그 만큼 정비례하는 오류와 오점도 남겨놓았다. 따라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바른 평가가 필요한 것이요, 그만큼 오늘의 지혜를 갖도록 우리들의 안목을 변화시켜준다. 이것이 각자 개인에게 남겨진 과제 중 으뜸이자, 최선의 과제일 것이다.

칼빈 연구에서만 아니라, 역사 속에 숨어있는 수 많은 오해와 고정관념의 틀을 간파하고, 이런 나쁜 역사, 부적합한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우리가 갖고있는 칼빈에 대한 개념들 가운데는, 마치 신화

처럼 적당히 꾸며지고 조작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학문의 동굴에 빠져서, 혹은 자신의 우물 속에 파묻혀서 곱해시키고 있음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학문의 한계와 인류 역사의 모순이 바로 가까이에 숨어있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5. 경건이나 영성이냐?

영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칼빈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1995년도에 이 주제로 미국 칼빈학회를 개최하였다. 우선 칼빈에게 있어서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중세말기에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주장하던 영성과 칼빈과는 관련성이 거의 희박하다. 리처드 갬블 박사는 "칼빈과 재세례파의 영성"이란 논문에서 16세기에 살았던 칼빈에게 20세기 신학자들의 영성 개념을 가지고 대입한다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한다. 더구나 칼빈이 가진 영성이라는 것은 "첫째,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지식이며, 둘째로 그 지식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⁴⁰⁾ 1539년 판 『기독교강요』에 삽입되었고, 최종판 제 3권에 나오는 기독교신자의 생활에 관한 교훈들이 바로 칼빈이 지닌 최고의 영성이었다. 칼빈이 제시한 기독교신자의 동기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요, 이를 위해서 그가 친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위하여 구원을 예비하셨다.⁴¹⁾ 그리스도는 단지 죄값을 치루신 것

40) Richard C. Gamble, "Calvin and Sixteenth-Century Spirituality: Comparison with the Anabaptists," *Calvin Theological Journal* 31(1996): 335~358.

만이 아니라, 신자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심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보증을 보여 주심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경건 생활 수칙을 기초가 제공된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제시한 모델은 이 땅위에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알리스터 맥그라트가 제시한 종교 개혁의 영성 이해와는 전혀 상반된 것이다.⁴²⁾ 맥그라트는 칼빈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치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갬블 박사는 이를 정반대로 해석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헛된 것이요, 지나가는 것들이다. 칼빈은 부활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경건을 강조한다.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훌륭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이지만, 이 세상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비전은 자칫하면 이 세상을 부정하는 칼빈의 생각보다도 넘어서서 세상을 긍정하는 영성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이다.

브라이언 게리쉬 교수는 '칼빈의 성만찬적인 경건'에서 "나는 경건이라는 말을 영성이라는 말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데, 경건(*pietas*)이라는 말이 칼빈 자신의 용어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힌다.⁴³⁾ 경건이란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로써 칼빈에게 있어서는 규범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다. 영성이란 설

41) Ford Lewis Battles, *The Piety of Calvin*(Grand Rapids: Baker, 1978), pp. 51~55.

42) Alister McGrath, "Reformation Spirituality: Historical Resources, Contemporary Possibilities," *The Drew Gateway* 60(1991): 3~100.

43) B. A. Gerrish, "Calvin's Eucharistic Piety," *Calvin Studies Society Papers, 1995, 1997*(Grand Rapids: Calvin Studies Society, 1998): 53.

명적인 단어로써 기도나 훈련이나 명상이나 인간의 종교적 행동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단어라고 보았다. 물론 칼빈도 경건의 연습을 강조했으나, 그는 경건이 무엇이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적합한 특수한 태도의 실천으로서 이해해야만 한다.

칼빈대학교의 윌브리엣(John D. Witvliet) 교수도 역시 칼빈에게서 영성이란 다름 아닌 경건이라는 말로 설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란에 빠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시편찬송을 통해서 이런 경건을 성취했는지 밝히고 있다.⁴⁴⁾

'칼빈과 영성'이라는 주제는 '경건의 의무'(*officia pietatis*)로서 헌신적인 생활의 핵심은 예배임을 밝히고 있다.⁴⁵⁾ 예배는 단지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체 신학이 관련된 신앙생활의 총체이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하는 반응이다. 이 예배는 십계명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배가 되도록 가르쳐지고 교육되어야만 한다.

필자는 이미 두 편의 영성에 관련한 글을 제시한 바 있고, 이를 다시 종합하여 '경건의 능력: 칼빈의 신학에서 본 영성신학 비판'을 발표하였다.⁴⁶⁾ 20세기 신학자들이 즐겨쓰는 영성이란 매우 혼란을 가져오는 애매한 개념이기에, 적어도 칼빈의 신학에서 만큼은 그가

44) John D. Witvliet, "Sprituality of the Psalter: Metrical Psalms in Liturgy and Life in Calvin's Geneva," *Calvin Theological Journal* 32(1997): 273~297.

45) Elsie Anne McKee, "Context, Contours, Contents: Towrads a Description of Calvin's Understanding of Worship," 66~92.

46) 김재성, "영성신학의 혼돈과 문제점," 『개혁신앙』 20호(1995): 57~74. "영성이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78호(1995년 12월호): 100~111.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제 8장, pp. 249~92에 발표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용어를 차용하기 보다는 경건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칼빈에게서 배우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21세기에 더욱 필요한 과제는 경건의 실천이라고 본다. 칼빈은 사색적이고, 추상적인 중세 신학과는 사뭇 다른 『기독교강요』를 저술하였는데, 교리와 생활, 신학과 경건이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적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선한 생활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그를 일컬어서 경건의 신학자 혹은 그의 신학은 경건의 신학(theologia pietatis)이라고 부르는 것이다.⁴⁷⁾ 이때 경건은 금욕적이지요, 개인적이지요, 피안적인 것이 아니다. 개인주의적이지요, 고립적인 경건이 아니요, 현실을 외면하여 혼자서만 도달하려는 현세도피적인 신앙 정진이 아니다. 여기서의 경건은 모든 문화와 사회 생활에 투철하게 참여하는 것을 요구한다.⁴⁸⁾

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그분이 주시는 유익들을 앎으로써 생기는 하나님께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가리켜, '경건'이라고 부른다. 왜냐면, 인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보호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과,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내셨다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찾을 수

47) F. L. Battles, *The Piety of John Calvin*(Grand Rapids: Baker, 1978). Philip C. Hotrop, G. C. Berkouwer, J. T. Bakker, H. W. Rossouw, W. D. Jonker 등의 학자들이 언약신학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는 경건을 주목하여 칼빈의 신학을 해석하고 있다.

48) 김계성, 『인간의 좌표』(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9), pp. 229~49.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들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⁴⁹⁾

하나님을 멀리 계신 주권자나,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사랑을 맞보아 알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경배를 드리는 일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흔쾌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⁵⁰⁾

지식을 바르게 가지는 것은 곧바로 윤리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는 점이 그의 신학 전반에 널리 스며있고,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경건과 사랑과 건덕과 겸양에 대한 강조가 계속된다.

길게 말할 것 없이, 다음 사항을 기억하고 넘어가자. 즉 모든 신앙 교훈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겸양과 절제의 규율을 고수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준 것 이외에 모호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말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물론이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더 나아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덕을 세우는 것들을 찾아 묵상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된다. 호기심에 빠져 무익한 일들을 조사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무익한 질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건설한 경건과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과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이 지식에 만족하자.⁵¹⁾

49) Institutes, I.ii.1.

50) Institutes, I.v.3.

51) Institutes, I.xiv.3.

5.1. 경건의 원천: 하나님의 말씀⁵²⁾

미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전체 메시지에 대해 기다리며 찾으려 노력하는 마음이다. 이미 자신은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동시에 하나의 주장이나, 이념이나, 원리에만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공통의 신학, 원리, 예배와 윤리 등을 말씀에서 찾아서 모든 부분들을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모든 사상과 모든 인물은 동시대의 제한성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엄숙한 경고 앞에서, 그의 생애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 탁월한 시대의 지성인이자, 헌신된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있는 동안,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창출하는데 역동적으로 몸을 던졌다. 물론 성경에서 역사를 초월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학적인 가치를 깨닫고 받아들인 지성인이었다. 유럽 최고의 학문을 섭렵하고, 가장 앞선 지식을 스스로 조화시키고 융화시키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지식의 원천은 성경이었다. 그는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인간의 모든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였다.

오늘의 한국 신학의 정립에 있어서 칼빈처럼 당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우리가 직면한 한국 교회의 문제를 정리하고 풀어 헤쳐나가는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방법이나 목회기술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뇌와 그 해결책이 성경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칼빈의 신학

52)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제 8장 “경건의 능력: 칼빈의 신학에서 본 영성신학 비판”(249~92쪽)을 참조할 것.

은 수많은 당대의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추구하면서 형성되어진 것이다. 천재의 영감이라기 보다는 목회자의 경건이요, 시대의 요청이었다.

5.2. 경건의 범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개된 삶

그에 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비쳐진 일들은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도리어 긍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가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계획들은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자신의 사역과 사상에서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가진 것이 발견되는데, 그의 신앙적인 체험의 독창성이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계시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인도하시며, 명령하신다는 생각으로 일관된 사람이었다. 이것이 칼빈으로 하여금 경건의 생활화를 이룩하게 만들었다.

칼빈은 죽음 앞에 둔 1564년 4월 28일 제네바 목사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면서 다시금 경건하게 살아간 자신의 삶을 고백하였다.

나의 죄들이 항상 나를 불쾌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마음에 항상 있었다

자신의 인격적 성찰에 힘쓰고 노력했던 이유는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다. 경건은 윤리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그의 신앙인격의 핵심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깨어있던 의식에서 나온 산물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공개된 삶을 살았고, 자신의 양심으로

진실하게 행동하였다. 그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살아갔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쳤다. 따라서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공개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해 온 모든 사역과 걸어온 생애를 조사해 보라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진실됨을 증명해 줄 것임을 확신하였다.⁵³⁾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인의 삶을 추구한다면,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 한 칼빈의 완고함과 대립적인 투쟁정신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도 세상은 복음과 대립적으로 다수의 흐름을 이끌어 가고 있다.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활방식이 숫적인 다수에 의해서 강요되고 있다. 얼마나 더 우리가 평안하게 이 세상 풍조와 상호협력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5.3. 경건의 목표: 교회와 자아의 갱신

프랑수와 방델은 “칼빈이 자신의 시대에 그러한 흔적을 남길 수 있었고, 또한 그 때를 넘어서서 까지도 좀처럼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까닭은 그가 강력하게 조직된 교회의 창설자였고, 동시에 하나의 체계화된 교리의 저자였기 때문에 지적인 엘리트와 많은 신자들까지도 그것의 주변에 집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의 배타적인 의미에서 볼 때, 칼빈은 한 사람의 사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류의 지도자였다(a leader of men)”고 결론지었다.⁵⁴⁾

그런데 이 지도자에게는 가장 근본적으로 경건한 신앙이 확고히

53) 1546년 4월, 아미 빠랭에게 보낸 편지.

54)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pp. 438~39.

자리잡고 있었다. 단점과 결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취한 업적을 가능하게 뒷받침해 준 그의 지도력의 근본을 배우고 본받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인 것이다.

칼빈은 영혼의 목자로서, 제도적으로 개혁교회를 정착시키려 노력했던 지도자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끊임없이 저술 작업과 수업을 통해 교리를 가르치던 신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형제들의 보호자로서, 구제에 앞장 선 자선사업자이자, 기독교 공동체 건설의 이상을 품었던 동정심과 인정을 지녔던 한 인간으로 살아갔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제네바 교회가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이다. 제네바 교회의 독립을 위해 시의회와의 투쟁은 1536년부터 시작되어서 1555년이 되어서야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제네바 교회는 독립적으로 성찬참여자 여부를 결정하고, 출교와 권징을 시행하는 권한을 확보하였고, 목사선임의 자유권, 설교에 있어서 간섭을 받지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투쟁을 거듭하였다.

5.4. 경건의 연습: Semper Reformata!

개신교회는 가장 중요한 표어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는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갱신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말한다. 신학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법이 세속적인 흐름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모든 사람은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딤후 4:8). 칼빈은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의 삶을 경건하게 유지하고 힘써 지속해 나갈 것을 여러 저술에서 권고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를 위한 처소가 없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유업도 없을 것이다 …… 여기서 나그네가 되는 사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땅에서 영원한 집을 가지게 된다. 만일 그들이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어둠의 구름을 넘어 하늘 나라를 바라보았다면, 우리들도 오늘날 그리스도가 그의 팔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펼치사 우리들을 그분에게로 분명하게 이끌어주시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히 11:13 주석)

성도들은 기록하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의 생활을 목상해야만 한다 ……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날 것이다. (마 25:31 주석)

[곤경을 당하는 자들은 악한자들이라는 소말의 잘못된 견해] 우리가 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 그것은 사두개인들의 오판이다[그들은 다가오는 생애를 믿지 않은자들이다]. (요 21:7 주석)

모든 일이 계속 잘 되기만 한다면, 우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마저도 서서히 부패하게 된다 ……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책망을 비웃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보여주신 것과 같이, 자기들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이것은 보편적인 사악함이다. (신 8:12 주석)

가난한 것보다 부요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요 1:2~5 주석)

물질적인 번영은, 포도주처럼 사람을 취하게 만들며, 아니 심지어는 발광하게 만든다. (호 9:13 주석)

[경건한 자들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번영은 곱광이나 녹이 끼는 것과 같다 ……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은 물질적 번영으로 인해서 연약해 지므로서 기도하려는 노력을 할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속 13:9 주석)

그러므로 사람이 가진 현재의 재산에 의해서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평가하려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신앙에서 벗어나서 에피큐리안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멸로 떨어지고 말 것이 분명하다. (행 23:8 주석)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경건한 자들에게도 고통이나 시련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딤후 1:2).⁵⁵⁾ 불경한 자들은 이에 대한 하나님이 섭리를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를 누리려는 사람들만이 행복하거나 즐거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잠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만, 경건한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있기에 소망으로 견디어 낸다.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케 하지 않으시더라도 슬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맛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시대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경건의 신학도 역시 급속히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가히 창조적 발상을 제안했다고 해서 현대 어떤 한 사람의 주장만을 가지고 절대시하려는 아집도 문제이고, 오래된 어떤 한 사람의 해석이나 가르침에 묶여서 역사적 정통성만을 반복하고 주장하는 좁은 안목에서도 벗어나야 하겠다. 칼빈의 신학은 오래된 것임을 내세워서 로마 교황권의 해석을 정통화하는 스콜라신학에 대해 철저히 갱신을 시도했고, 당시의 유해처럼 번지

55) Institutes, I.xvii.8.

던 휴머니즘이나 극단적인 재세례파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변화의 바람 속에서 오류를 씻어내려 할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한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역시 어려운 작업이다.

그의 신학도 역시 전환기의 신학이었다. 미래의 신학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독교강요』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치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저자들이 훨씬 분명하게 밝혀주듯이, 개혁자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지난 후에 전체 성경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리라고 믿었다. 칼빈도 역시 이런 자기 비평의 선구자였다. 비록 그 자신이 신약과 구약의 해석에서 남다른 정확성과 유익한 업적을 성취한 학자였지만, 그것을 당대에 반영하고 적용하기에 많은 부분에서 자신도 역시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5.5. 위대한 경건의 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항상 이런 목표가 달성되기를 소원했던 칼빈의 완고한 주장과 집념은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종종 인간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하였다는 도전을 받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분명히 그의 거룩한 열정이 부족하다. 심지어 그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헌신의 삶을 닮지 못하고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죄악이요 치명적인 허물이다.

지속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딤후 5:6~12)

칼빈이 가진 공적인 이미지는 매우 딱딱하고 무뚝뚝하다. 그것은 그 자신이 항상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리고 경건을 연습하며, 정금과 같이 자신의 신앙인격을 연단하기 위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거룩과 훈련이라는 두 가지 신앙의 요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절실히 요청되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인격 요소들이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인 사랑의 다른 모습이다. 아주 잘 훈련된 지도자 밑에서 고도의 단련을 받은 교회만이 이 시대의 도전에 맞서서 싸울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 칼빈의 이미지는 내적으로 혹독한 자기 부인을 위해 애쓰는 동안 다소 거만하게 보이고, 무례하다고 생각되며, 냉혹하게 보이는 오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1555년 이후로, 제네바는 상당히 발전된 민주주의를 시행하게 되었다. 칼빈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도시내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계속된 반대자들과의 대립에서 공개적으로 고통을 당해온 칼빈의 친구들은 간절히 바라마지 않았던 질서와 법규를 준수하는 도시국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칼빈이라는 한 개인의 인격과 인품이 제네바 민주주의의 정착과 전반적인 도시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면서 독립을 염원하던 도시가 약간의 승기를 잡았을 무렵에 칼빈은 이 도시에 낯선 외국인의 한사람으로 들어왔다. 칼빈은 제네바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비교해 볼 때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대립과 갈등을 자아냈다. 그만큼 제네바 사람들은 '완고하고 유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칼빈의 개혁방안은 받아들여기에 힘든 철저한 신앙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제네바라는 도시는 칼빈 이전에 이미 상당히 독립된 공동체로 발전해 있었다. 이런 제네바 시민들의 자부심과 충성심은 종교개혁자라고 해도 전혀 깨뜨릴 수 없었다. 상당히 발전된 사회체제는 칼빈 이전의 제네바 시민들이 이루어놓았기 때문에, 심지어 칼빈의 반대파 지도자들마저도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었다. 1387년 주교의 지배하에 있을 때부터 5%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공적인 금전 대출을 허용하고 있었다. 1538년부터는 16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무역업자들의 대대적인 거래소가 제네바시 최고위원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칼빈이 이 도시에 오지 않았더라도 이들의 행정과 역사는 상당히 발전해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영향력은 칼빈이 세운 당회와 목사회를 통해서 이 세계에 어느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특별히 예외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네바 교회 내에 설치된 당회와 목사회는 칼빈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 도시에서 독특한 임무를 수행한 힘의 결집체이자, 신앙을 위해 세운 창조적인 제도의 걸작품이다. 당회는 정치적으로 독립권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기관이요, 제네바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곳이었다. 제네바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때에, 주교의 관할에서 영주를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치와 종교가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리된 것이다. 이 새로운 비전으로 칼빈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성도들의 권징을 실시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도모해 나갔다. 나스는 이 제네바

의 체제가 유럽 전역에 미친 영향을 높이 극찬하면서, "사도 시대 이후로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평하였다. 영적인 권위와 세속적인 권위를 분리하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 완벽한 승리를 얻어냈고, 평신도 대표들이 참여하므로 일반 성도들이 반대할 명문마저 없었다.

칼빈의 승리는 고통 속에서 그러나 서서히 무지하고 어리석은 대적자들과 싸우면서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는 영구히 남을 깊은 영향을 제네바의 통치구도에 남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칼빈 자신의 경건과 그가 세운 교육제도를 통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나오자 이런 영향력은 유럽 전역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있다'(딤후 4:8)는 말씀은 참으로 칼빈의 생애에서 이루어졌다. 칼빈의 경건한 삶과 윤리는 유럽 역사에 매우 예외적으로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졌다.⁵⁶⁾ 무엇보다도 칼빈이 정치적, 신앙적, 윤리적인 방면에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그를 찾아서 찾아오는 피난민들을 통해서였다. 또한 칼빈과 교제한 상당수가 당대 가장 지체 높은 귀족들이었고, 잘 훈련된 법률가들, 각 도시에서 최고의 영향을 발휘하는 목사들, 일반 시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학식을 갖춘 교수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군주들과 장군들, 각 도시의 행정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세계 곳곳에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개혁신앙을 전파하는 중요한 파수꾼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그의 영향력은 유럽의

56) 칼빈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음 대표적인 연구를 참조하시오. Andrew Pettegree, Alastair Duke & Gillian Lewis, eds., *Calvinism in Europe 1540~1620*(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W. Stanford Reid, ed.,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Grand Rapids: Zondervan, 1982).

종교세력의 지도를 바꾸어 놓는 엄청난 반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 시대, 하나님의 종이 보여준 경건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맺는 말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다뤄질 때에 공정한 것이다. 칼빈의 신학사상이나 교회사적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가 대면하여 살았던 제네바의 위급한 상황과 그가 당대의 종교개혁자들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체험으로 터득한 당대의 가치관이 지닌 한계를 동시에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1541년 9월 13일 다시 제네바로 부름을 받아 돌아올 때에, 그는 거의 일년을 사양해오다가,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된다. 자신을 그토록 추천하고, 친히 찾아와서 간곡히 권유했던 파렐에게 보낸 칼빈의 편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잠시 호흡을 멈추게 한다. 과연 목사다운 기품과 각오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한 젊은 목사의 결의가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남들이 가지 않으려 하는 길을 가면서, 자기를 완전히, 그리고 아낌없이 희생하여 제물로 바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절대헌신의 다짐을 표명한다. 이 편지에는 칼빈의 마음이 담겨있고, 그의 인격의 초상화를 그려낼 수 있도록 비밀을 드러내 준다. 칼빈을 이해하고, 그에게서 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그의 순교의 결의, 곧 '경건의 대현장'이라고 부르고 싶다.

…… 나의 진행되어온 과정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저의 심정

입니다. 만일 나에게 선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의 충고를 따르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내가 동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처럼, 나는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그렇다고해서 귀하께서 좋은 대답을 들으신 것에 대해 고마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친구들은 진지하고, 신실하게 약속하였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모든 고려사항들은 제쳐두고, 그들이 바라는 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는 것 외에 다른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 내가 일해야만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해를 끼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실수를 범하므로써,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목격한 것에서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애뜻한 감정들을 바치오며, 복종시킬 것이며, 흔들리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뜻을 버려야만 할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합니다.⁵⁷⁾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I offer up my heart to the Lord.)는 말은 그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이 편지에 담긴 전체 문맥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다짐이다. 그저 어떤 거창한 업적을 성취하고자 출정하는 한 영웅이 이름을 위해서 무슨 결단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처신하겠다는 헌신의 표명이다. 진정으로 자기 한 몸을 던져서 혼란한

57) 1541년 8월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제네바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파렐에게 보낸 편지. *Calvin's Selected Works*, vol. 4: 280~81.

교회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른 두 살 된 젊은 목사의 결심과 의지가 담긴 말이다. 자신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도시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순교의 각오가 뒤따른 후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직도 각종 계파와 이해관계가 요동치는 도시, 언제 또다시 여론이 뒤바뀌어져서 등을 돌릴지 모르는 불안한 도시를 향해 자신을 한 마리 희생 양으로 바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난 후, 스트라스부르를 떠나게 되었다. 부채로부터 허락받은 6개월 동안만 도움을 주고자 어려운 발길을 돌리기로 하였다.

교회를 위한 신학을 정립한 칼빈은 경건한 사람으로 개인의 수련만을 위해서 정진한 수도사가 아니었다.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신학도들과 성도들도 한국 문화와 사회, 정치와 교회와의 관련성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생명력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할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세상이 따로따로 분리되어가고, 현장과 이론이 서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신학자들은 쌓은 학식과 지식에만 근거하여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움을 제공하고, 목회자들은 교회의 역량과 지도력을 동원하여 한국 사회의 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터득해야 한다. 성경에 충실한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지혜, 용기와 겸손을 동시에 발휘하는 성숙된 인격, 깊은 학문에서 우리 나오는 겸허함과 신실함, 진지함과 너그러움이 풍요롭게 어루러진 인품의 향기를 얻으려면 칼빈 연구에서 큰 소득을 얻을 것이다.(*)

[신학정론](2000, 18권 1호) : 203~238

존 콕(John B. Cobb, Jr.)의 종교 다원주의와 화이트헤드(A. H. Whitehead)의 ‘하나와 여럿’(the One and the Many) 개념

정 승 원
<조직신학·전임장사>

1. 들어가는 말
2. 종교다원주의의 두 가지 속제
3. 유기적 원자론
4. 화이트 헤드의 ‘창조성’ 개념과 ‘하나와 여럿’ 개념
5. 존 콕의 종교다원주의
6.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후현대주의(postmodernism)의 특징 중 하나로 우리는 다원주의(pluralism)를 들 수 있다. 후현대주의는 일반적으로 절대성, 획일성, 보편성, 객관성 등을 거부하고, 그 대신 상대성, 유동성, 과정성 등을